



지혜가 있다면 다 놓을 수 있고 굴릴 수 있어요

사회자 금주 법회부터는 당선법회식으로 진행하니 모든 불자님들께서 생활상이나 혹은 공부하시는 가운데 여쭙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크스님 우리가 한 손바닥만을 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양쪽 손바닥을 쳐야 소리 저 소리가 나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서부터는 당선법회를 하겠습니다. 내가 서두를 꺼내죠, 물론 마음을 깨닫고 안 깨닫고를 떠나서 나 역시도 여러분이 밥을 배불리 먹고 자유스럽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잡담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선법회로써 서로서로 대화를 해 가면서 길을 가는 이 진리를 이해를 해야 믿는 것도 철저히 믿을 것 같습니다. 자기로부터 이 우주 천하가 생겼다는 것도 알고요,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있다는 점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생활도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 나가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모든 게 내 한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그 점. 그런 게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선법회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도리를 취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도리를 취하는 것은 길을 가는 데에 손목을 잡아 주고 이리로 가야 된다고 알려 주는 하지만 바로 가서 느끼고 맛을 알고 먹어야 한다는 그 점은 본인이 해야 하지요.

하지만 마음이 좁고 넓고를 말할 때 넓은 것은 구정물이나 더러운 물이나 똥물이나 다 들어가도 들어간 사이가 없겠지만, 좁은 물에는 구정물이나 똥물이 들어가 한번 뒤집히면 가라앉기가 어렵습니다.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건드려면 금세 구정물이 되고 떠오릅니다. 적은 물 큰 물, 이것을 비유해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지혜가 넓으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러지만, 또 이해만 해서도 아니 되고 공(空)에서 나오는 걸 공에다 다시 놓을 수 있는 그 지혜력, 지혜가 없다면 허공에도 비늘구멍 하나 안 들어가듯이 그렇게 좁은 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큰 물과 같이 구정물이 때에 따라서 들어가거나 흙물이 들어가거나 똥물이 들어가도 그것을 그대로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도의, 의리를 포함해서 지혜롭게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대천세계(大千世界)의 강물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러나 오늘서부터 당선법회로써 우리가 서로 토론해 봅시다. 질문하십시오.

질문자(여) 부처님의 말씀을 다 이해는 못 하겠는데, 제게 현재 어떤 사건이 생긴다면 그것이 과연 흔히 듣고 있던 어떤 인과에 의해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것이 전생의 업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요,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는지, 그리고 전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크스님 이렇게 밝고 밝은 세상에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은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유전공학이나 뭐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지내면서도 그것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고정된 관념이 없고 고정된 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찰떡찰떡하게 한 토막씩 찢아 찢아 넘어가니깐

그렇지,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바로 일생, 칠십 평생 팔십 평생 넘어가는 이 때에 우리는 그 물에서 뗏다가 그 물에 가라앉을 뿐입니다. 가라앉았다 뜨고 뗏다가 가라앉고 이렇게 하는 것 밖에는, 인생이 그런 거밖에 안 됩니다. 뗏다가 가라앉고 뗏다가 가라앉고 하는 그런 동안에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어찌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오늘까지 울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해 보십시오.

내가 잘 되겠다고 입을 했는데 그것이 안 돼 버리고 망했을 때 그렇게 자기가 저질러 놔기 때문에, 잊고저게 저질러 놓은 일이 오늘에 다 치니까 막 울죠? 그리고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는데 망했다고 남을 원망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업을 지어 놓고 자기가 받는 거죠. 그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진화를 해서 우리가 모습을 바꾼다고 하는 창조력은 우

리가 금방... 요거를 이해를 해 보십시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머니 만났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어머니 만났을 때 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딸의 행동과 딸로서 딸이 나갑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는 남편에 의해서 딸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 만날 때하고 남편 만날 때하고 찢아내, 내 마음은 전체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그 행까지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활 불교로써 이끌어 가려니까 이렇게 내가 말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에 뛰어들었습니다.

옛 선사들처럼 낫밥을 던져서 하기 보다는 그냥 여러분하고 뛰어들어서 같이 죽을 쑤든지 밥을 쑤든지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칠십 평생 팔십 평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만날 때의 그 모습하고 남편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은 변화가 돼 가는 것입니다. 찢아 찢아 자기 자신들은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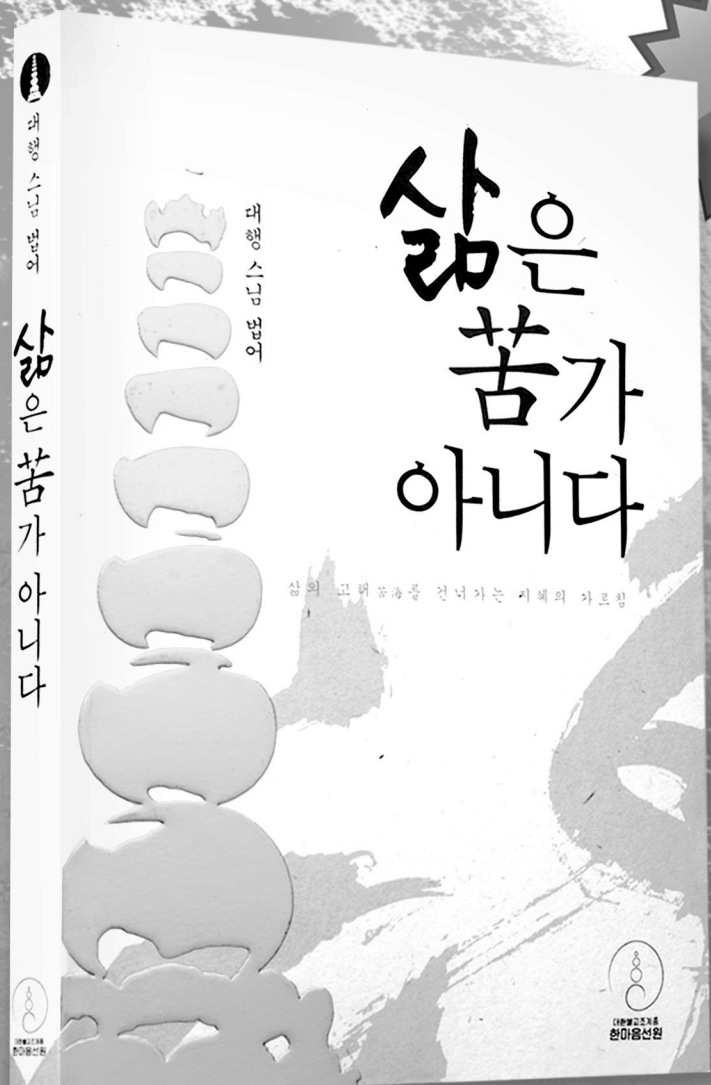
한 거를 모르지만 시계 초침 하나 푹푹푹 가는 대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금방 엄청나게 변화가 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된 걸 모르고 갈 뿐입니다. 찢아 찢아 나뉘고 가는 것이죠. 화(化)해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 만날 때에 딸과 행과 마음이 동시에 융합이 돼서 무심으로 그냥 무행을 했는데, 그렇게 한 자체와 칠십 평생이나 팔십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 또다시 이 세상에 나는 것이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칠십 평생 팔십 평생, 백 살을 살다가 죽든지 애적에 죽었든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인연 따라서 또 만났다가 할지라도 그 순간, 어머니 만날 때에, 즉 말하자면은 그 삼합(삼습)이 동시에 움켜쥐어서 자기가 행을 하는 거.

남편 만날 때에 또다시 그것이 훌쩍 바뀌어서 아내로서의 생각이 들고, 딸로서의 생각이 들거나 며느리로서의 생각이 드는 거. 며느리로 살다가 금방 아내로 살았어, 이것을 바로 윤회라고도 하고 인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축소해서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모르시면은, 우리가 그런 게 존재하느냐고 하는데 진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은 자기가 받게 마련이니까요. 지혜가 있다면 다 놓을 수 있고 굴릴 수 있고, 지혜가 없다면 바늘구멍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좁은 마음은 그걸 능가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이, 어머니 만날 때도 내가 만났다고 하고 남편 만날 때도 내가 만났다고 합니다.

벌써 시계 초침 하나하나 갈 때마다 내가 변화된 거를 모르고 있을 뿐 벌써 딸이 났다가 남편의 집 며느리가 됐다, 금방 남편의 집 남편이 된 그 사이가 찢아 찢아...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또 한 번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사는 걸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축소를 하면은 앞서의 그 게 되고, 만약에 대의적으로 따진다면은 죽고 또다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사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진화나 또는 모습의 진화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아까 얘기했듯이 어머니 만날 때의 마음과 아버지 만날 때의 마음, 동생 만날 때의 마음이 이렇게 아주 묘하고 자유스럽게 무심으로

그림 · 최주현

22면으로 계속



초판 22세의 스테디 셀러!!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꿀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계승·선화의 집대성 [포집]
- ▶ 신행요전(법어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천수경(한글/영어)

10,000원 A5 / 287쪽